

종영 '금혼령' 의금부 도사 역 김우석



“지고지순 순애보
눈빛으로 말했죠”

2017년 데뷔... 지상과 첫 주연
“눈빛연기에 작사랑 경험 녹여”
“올해 안에 입대, 너무 아쉬워”

배우 김우석이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묵묵하게 지키는 지고지순한 순애보를 연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MBC 드라마 '금혼령' 종영을 기념해 지난 27일 만난 김우석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작사랑 했던 경험을 많이 녹였다”고 말했다.

'금혼령'은 7년 전 세자빈을 잃고 금혼령을 내린 왕 이현(김영대)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할 수 있다는 혼인 사기꾼 소랑(박주현)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우석은 의금부 도사 이신원을 연기했다. 7년 이 넘도록 잊지 못한 여인 소랑이 왕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애절한 마음을 삭이는 인물이다.

김우석은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작사랑 했던 경험에 대해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떠올렸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진하는 편인데, 이신원은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조선 시대이다 보니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도 참아야 했죠. 작사랑했을 때 감정을 떠올리며, ‘좋아하는 마음을 높려야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며 몰입했어요.”

김우석은 겉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신원의 애달픈 마음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특히 눈빛 연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하면 무미건조해 보일 것 같아 눈빛연기로 감정을 전하려고 했다”며 “연기하는 순간에도 확신이 없어서 감독님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고 여러 번 여쭙었다”고 돌아봤다.

데뷔 7년 만에 지상파 미니시리즈 주연을 꿰찬 김우석에게 배우라는 직업은 사실 꿈도 못 꾸던 일이었다고 한다.

“TV 속에 나오는 배우들은 그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20살 때 영화 ‘레미제라블’을 봤는데, 제게는 그 어느 배우보다 에디 레드메인이 반짝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꼭 블루스퀘어에서 ‘레미제라블’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명확한 꿈이 생겼죠.”

뮤지컬 배우의 꿈을 품은 김우석은 우연한 계기로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2’ (2017)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웹드라마 연기는 사실 윤희별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보니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드라마 ‘보이스2·3’ (2018·2019), ‘반의반’ (2020) 등에서 조연을 맡으며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김우석에게 지난해는 결실의 한 해였다.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사회성이 부족한 안하무인 금수저 노태남을 연기하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수업’을 통해 해외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올해 안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김우석은 한참 빛을 보려는 때 군대에 가게 돼 “아쉬워 죽을 것 같다”고 웃으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렇게까지 얼굴을 많이 비출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 했는데, 꿈이 현실이 된 셈이에요. 아쉬움이 크지만, 여태 안 갔다 온 걸 어찌했어요. (웃음) 잊지 않고 기다려주시다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윤정희를 추모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의도성당서 위령미사... 뉴욕 분향소도 운영

고(故) 배우 윤정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미사가 국내에서 열린다.

윤정희 유족은 서울 여의도성당에서 오는 30일부터 사흘에 걸쳐 위령미사를 봉헌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윤정희의 셋째 동생 손병주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이 한국 방문 시 다녔던 여의도성당 측과 협의해 위령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 씨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유족은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에서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플러싱 노던가에 위치한 전미주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마련됐으며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고인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비롯한 유족은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 인근 성당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 후 파리 인근 묘지에 안치된다.

/연합뉴스

‘넘사벽’ 블랙핑크



기네스 세계기록 6개 부문 추가
K팝 여성 최초 英·美 차트 1위
리사, 솔로 아티스트 3개 부문 등

걸그룹 블랙핑크(사진)가 기네스 세계기록(GWR)에서 6개 부문에 추가로 등재됐다고 2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블랙핑크는 두 번째 정규 음반 ‘본 핑크’(BORN PINK)가 영국 오피셜 차트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면서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영국 앨범 차트 1위’,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 2개 부문에 공식 등재됐다.

또한 지난해 8월 진행한 인게임 콘서트 ‘더 버추얼’(The Virtual)을 통해 ‘MTV VMAs(Video Music Awards·VMAs) 베스트 메타버서 퍼포먼

스 첫 번째 수상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멤버 리사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3개 부문에 추가 등재됐다.

리사는 ‘MTV VMAs K팝 솔로 최초 수상’과 ‘MTV EMAs(Europe Music Awards) K팝 솔로 최초 수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리사는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천630만명을 기록하며 ‘K팝 아티스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최다 보유자’ 타이틀도 획득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그룹으로서 12개, 로제 2개, 리사 5개로 기네스북에 지금까지 총 19차례 이름을 올렸다.

기네스는 “블랙핑크는 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자타공인 세계 최고 걸그룹”이라며 “앞으로 블랙핑크가 새롭게 경신할 기록들도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멕시코서 한국 길거리 음식 파는 ‘서진이네’

tvN, 다음달 24일 첫 방송

tvN은 BTS 멤버 뷁가 출연하는 나영석 PD의 새 예능 ‘서진이네’를 내달 24일 첫 방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진이네’는 멕시코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을 담는다. ‘윤식당’ (2018)의 스펀 오프 프로그램이다.

‘윤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을 제공했다면 ‘서진이네’는 보다 친근하고 가벼운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윤식당’에서 이사를 맡았던 배우 이서진이 이번에는 식당의 사장님으로 나서고, 정유미, 박서준은 그대로 종업원을 맡는다.

박서준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뷁와 최우식의 합류도 기대를 모은다. 분주한 와중에도 티격태격하며 편한 친구 사이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2월 24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